

근대 초기 도시 이미지와 자연 체험

— 1910~20년대 산문을 중심으로

김 중 철*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근대 도시와 자연의 발견
 3. 근대 도시의 이미지 양상들
 4. 근대의 자연 체험과 반도회성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조선의 근대 초기, 도시라는 공간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 이 연구는, 근대 초기 격변의 시기에 도시라는 생경한 공간은 근대 조선에서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으며 도시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자연은 또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도시 이미지와 자연 인식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란 공간이 근대(성)의 풍경을 집약하는 표상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도시를 소재로 한 담론들은 우리의 근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기도 할 것이다.

조선의 근대 초기, 시대의 격변과 함께 밀려든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이국의 문물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의 체험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결국 도시가 갖는 문명적 속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도시화·문명화란 결국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유리시켜 놓는 동기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chobom98@hanmail.net).

내지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근대 초기, 중세의 자연관과는 다른 근대적 자연관의 탄생과 출현을 짐작해보게 된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규정이 요구되었거나 행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서구의 근대는 자연을 모험과 탐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근대 초기 조선에서 자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결국 근대 도시 공간에 대한 질문으로 환치될 수 있을 것이다. 재론하거니와 근대의 자연은 근대의 도시 인식에 크게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바탕을 두어 이 글은 근대 초기 산문에 나타나는 도시의 풍경과 이미지들을 살펴본 다음 자연에 대한 인식 양상들을 함께 살펴나갈 것이다.

2. 근대 도시와 자연의 발견

근대는 도시의 등장과 함께 출발한다. 근대의 풍경은 곧 도시의 풍경이다. 도로, 자동차, 학교, 백화점, 박람회 같은 근대적 사물과 현상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그것은 그대로 근대의 풍경을 조성한다. 도시는 근대의 상징이자 그 전시장이다. 다음은 근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던(근대)과 도시의 관련성이다.

모던 생활이란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흠냄새 땀냄새로 섞여 짜인 시골 농촌에서는 이런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면 어디냐? 결국 그것은 도시의 산출이다. 도시라 하더라도 도시의 거리거리 귀퉁이마다 이 모던 생활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로 말하면 종로 네거리라든지 진고개라든지의 포도 위에 또는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음악회 등의 의자 위에서 영위되는 생활이다. [...] 모던 생활은 街頭의 생활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리'를 맨드러내어서 그것을 길러가는 근대적 대도시라는 괴물의 소산이다.¹⁾

1) 赤羅山人, 「모던 數題」, 『신민』, 1930. 7, 126쪽.

모던 생활은 “도시의 산출”이다. 근대 도시를 “괴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분명하다. 그에게 도시는 거대하고 포악스런 또는 기이하고 흉측한 이미지다. 공포와 경계, 적의와 반감의 대상으로 놓여 있다. ‘모던’이란 게 바로 그 “괴물의 산산”이라면 모던에 대한 그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근대와 도시에 대한 당대인의 한 시각을 보여주는 데 이것이 한 개인의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혹은 일시적인 편견이 아님을 확인하는 게 결국 이 연구의 작업이 될 것이다.

도시의 형성과 성장은 자연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킨다. ‘자본주의 경제를 하부구조로 가지고 있는 근대 이후의 도시’²⁾는 봉건적 도읍이나 시골의 농촌과도 다르며 또한 자연 공간과도 그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적 산물의 공간적 집약체’³⁾로서의 도시의 발달과 확장은 자연에 비(非)인공·반(反)문명적 성격을 부여하거나 강화한다. 근대화·산업화는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는 새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이때 ‘풍경(landscape)’이 인간의 손을 거친 자연, 즉 인위적인 힘이 미치고 인간이 가꾸어낸 의미라면 ‘자연’은 그것과 대비되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것’, ‘인공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도시의 출현이 자연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놓고 있는 셈인데, 이를테면 근대의 자연은 ‘도시가 존재하기 이전의 자연이 아니’⁴⁾라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 자연을 소재로 한 글들은 도시 공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통 자연 소재 담론⁵⁾들과 구별된다. 이를테면 도시 환경의 불결함·복잡함은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깨끗한 공기나 푸른 녹지 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도시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도시민에게 자연은 심신을 휴양하기 위한 휴식

2) 남진우, 「한국시의 도시성과 근대성」, 『근대 근대성 근대문화』,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2005, 135쪽.

3) 김백영, 「공간의 역사」,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새길, 1997, 79쪽.

4)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화를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254쪽.

5) 주지하듯, 근대 이전에 자연은 주로 귀거래(歸去來)의 운둔이나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풍류, 혹은 무위(無爲)나 관조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과 위로의 공간이 되었으며, 계획적으로 인위적인 자연(공원)을 설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생산(만들)’해내기도 한다. 근대 시기에 들어 자연 소재의 글들이 쏟아진 것 역시 역설적이게도 근대화와 도시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명승지에 비해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을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기는 쉽지 않다. 흔히 만나고 보는 주변 자연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주변 자연의 가치가 근대에 들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풍경들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것, 자연 그대로의 것들이 새삼 강조되기 시작한다. 물론 인공적인 것들의 부정성이 드러남에 따른다. 도시의 부정성이 드러날수록 자연과의 차이는 뚜렷해진다. 근대 초기 산문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바로 이 점이다. 도로가 놓이고 건물이 개량되고 교통이 편리해졌음에도 근대 산문에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회의적이며, 자연과 단절되는, 혹은 그 거리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자연의 질서나 순수에 어긋나는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철도를 위시한 근대 교통의 발달은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세계를 열어놓았다. 근대문명은 자연적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이 말은 달리, 근대가 자연의 상실과 함께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⁶⁾ 식민지 근대화에 따라 조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기 시작했다. 식민화 정책으로 인한 국토의 상실과 문명화 개발로 인한 자연의 상실이 그것이다. 근대화 과정은 근대화에 대한 반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국토의 상실은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각성시키고 자연의 상실은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의 근대화 과정은 국토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과정이기도 하다. 국토에 대한 재인식이며 자연에 대한 재발견인 셈이다.

서구적 의미에서 근대성은 ‘중세적 전서의 와해 속에서 등장했으며, 그것은 동시에 중세적 질서를 와해시킨 힘’⁷⁾이기도 하다. 이 말에 근

6) 기차의 등장이 자연의 풍경을 변형시키고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372~382쪽 참조.

대(성)와 자연의 관계를 대입시켜볼 만하다. 근대(성)는 이성과 과학, 물질과 도시(성)와 함께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연 질서의 와해 속에서 등장했으며, 또한 그것을 와해시킨 힘’이기도 하다. “신은 시골을 창조했고 인간은 도시를 창조했다”라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시기에 서구에서 유행했던 한 선언은 신으로 상징되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서의 도시 문명의 의미를 함축한다.⁷⁾ 도식적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쓴다면, 근대(성)는 자연과의 대립과 갈등, 그것의 파괴·상실과 함께 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와 자연의 거리는 확인해지고 그 경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근대화가 문명/야만의 이분법의 발생과 함께 출현했다면 도시/자연의 이분법적 사고 역시 근대화가 가져온 근대적 사유방식이라고 하겠다.

3. 근대 도시의 이미지 양상들

식민지 근대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을까? 그 시선이 포착하는 근대 도시의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근대 도시를 바라보는 근대인의 시선과 그것이 포착하는 근대 도시의 이미지들을 대표적인 몇 글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小星(현상윤)의 「京城小感」(『청춘』 제11호, 1917. 11)은 작가가 일본에서 귀국하였다가 동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성에 잠깐 둘러 둘러본 이야기다. “경성이 얼마나 진보되며 얼마나 발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흘 동안 경성을 둘러본 화자의 결론은 “경성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성은 화자에게는 그저 “아니되려는 경성 같이만 보이고 물러가려는 경성같이만” 보인다. 애당초 기대했던 진보나 발전은커녕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적인 이미지뿐인 것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성은 아주 事無訟하고 사방에 無一事한 것같이 보인다. [...] 자기 할일을 남이 하여주려니 하는 듯하다. 남은 발명을 하며

7)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앞의 책, 27쪽.

8) 남진우, 앞의 글, 135쪽 참조.

발전을 하여 세계문명에 공헌을 하노라 야단인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의 덕이나 보자 하는 듯하다(『청춘』 제11호, 125쪽).

“事無訟하고 사방에 無一事”하기만을 바라는 나태와 안일의 생활습속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대 문명 세계는 ‘발명’과 ‘발견’으로 요약되는 바 실험적 도전과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만 근대 경성의 시민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할 일을 남이 하여 주려니” 하는 요행과 요령만을 부릴 뿐이라는 것이다. 화자는 그들에게서 무사안일과 무기력함을 본다. 화자는 경성에서 근대 도시가 갖는 활력과 생동감⁹⁾ 대신 “怠氣滿滿이라고 할 밖에”(125쪽) 없는 봉건적 습속의 잔재를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경성은 겉질뿐이요, 속은 아무 것도 없다.”(128쪽)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경성은 허영의 도시로 서방님의 도시같이 보인다. [...] 경성 일반이 모두다 바람에 띄운 듯하고 헛氣에 사로잡힌 듯하다. 그리하여 사람사람이 모두다 하지 않고도 무엇이 잘 되었으면 하는 듯하고 비록 한다 하여도 어떻게 단 한번에 천금을 쥐었으면 하는 듯하다(127쪽).

경성 거리를 거니는 남녀노소에게서 화자는 “허영의 불길”을 본다. 그것은 “각 사람의 이마에 붙어” 있을 정도로 확인하고 또 만연하다. 그리하여 그의 눈에는 “경성은 아무리 보아도 속보다 겉을 꾸미는 도회같이”(128쪽) 보인다. “속에는 개똥을 가졌을지라도 겉에는 비단을 싸려하는” 경성은 외형적으로는 발전해 있고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 아직 전근대성과 미개성을 벗어나지 못한 모순과 이중의 이미지이다.

경성의 이러한 이미지는 秋湖(전영택)의 「서울雜感」(『서울』 제5호, 1920. 4)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9) 근대 기행문 중에서 대표적 근대 도시 동경은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동경에서 경성까지」(추원) 등의 글에서 확인된다. 성관호의 「나의 본 일본 서울」, 「개벽」 제12호, 1921. 6에서는 동경의 특징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으며 일본의 힘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노라고 적고 있다.

서울 사람의 생활은 보매 모두 理想이 없는 생활이다. 현금 조선 사람의 생활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더구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참말 물이상이다(『서울』 제5호, 45쪽).

“아무 자각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이”, “이력저력 하루 이틀 지나가는”(45쪽) 서울 사람의 생활은 앞선 글의 “事無訟하고 無一事”만을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강요된 근대의 도시 풍경의 주변에서 이상과 희망을 상실한 채 부유하는 도시인의 이미지를 압축하고 있다. 근대 문명의 충격과 소외 속에서 망연해하는 허약한 ‘국외자’의 표정을 보게 된다. 화자의 시선 속의 서울은, 관습적 의식과 고착된 삶 속에서 변화와 생동을 갖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군상들의 공간이다.

우리 서울 사람에 허위가 많고 外式이 가득한 것은 과연 놀랄 만하다. 그들의 일동일정과 일언일구가 거의 다 허위요 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물질적 문명 그 중에도 현대문명의 암흑면의 毒流를 맨 먼저 가장 즉효적으로 받아서 그들의 생활이 몹시 경박하고 형식이요 허위적이매 서울의 공기에는 가장 불유쾌한 독액냄새가 흘러 있다(46쪽).

근대성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본질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이 주는 “슬픔과 적막”(42쪽)은 물질적 결핍보다는 정신적 결여 때문이다. 물질적 발달과 함께 “정신적 향상이 평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사람에게 ‘理想이 없음’과 ‘허위와 外式에 가득차 있음’은 주된 비판의 이유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허영심만 있고 아무 자각이 없는 여학생을 이끌어 망하게 하는 유혹물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동차로 상징되는 현대문명은 “경박하고 형식이요 허위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현대문명의 암흑면의 毒流”를 받은 서울이 “불유쾌한 독액냄새”를 풍긴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근대 문명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은 비판을 넘어 혐오에 가깝다.

화자는 아예 서울을 “무뢰한의 소굴, 죄악의 배양지”(47쪽)라고 단언해버린다. 이것은 곧 서울로 상징되는 근대성 혹은 문명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기도 하다. 자동차로 상징되는 사치와 허영 속의 부르조아와 그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직업을 잃어버린 인력거꾼의 공존 역시 근대 도시가 낳은 산물이다.¹⁰⁾ 근대성과 전근대성이 모순적으로 혼재하는 서울의 풍경을 화자는 다음과 같이 압축한다.

굉장한 미술적 간판 밑에는 원시적 초가막아리가 그냥 있고
현대식 양식집에는 상투 짓고 망건 쓰고 긴수염 늘이고 긴 담배
대 가로문 양반들이 팔짱을 끼르고 서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43쪽).

화려하고 웅장한 서구식 건축물은 조선의 전통적 건축물을 밀어내고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경성의 화려한 시가지 풍경은 근대 조선을 표상하는 이미지가 된다. 그럼에도 세련되고 고급스런 간판 밑에는 “원시적 초가막아리”가 아직 그대로 있고 “현대식 양식집”에는 “상투 짓고 망건 쓰고 긴수염” 늘인 양반들이 여전히 드나든다. 근대 도시 서울의 진풍경인 것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모순과 어색함, 무질서와 혼돈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위 두 편의 글에서 보이는 경성의 풍경은 경성이 조선을 표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대 조선 도시 전반의 풍경이라 하겠다. 경성은 ‘식민지적 상황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자 동시에 근대적 사회 변화를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장소’¹¹⁾이다. 근대 산문은, 근대 문명도시 경성의 외양이 화려하고 유혹적이지만 그 경험의 실상은 절

10) “모던 생활자들은 노동생활과 무관한 유산자, 유한자 계급이거나 뿌리 부르조아지요 소비 중심의 생활자들이라는 시각이 모던을 비난하는 글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곧 모던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표현이기도 했다.”(김진송, 앞의 책, 47쪽)

11) 김영근, 「인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사회와 역사』 제57집, 한국사회사학회, 2000, 12쪽 참조.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두 편의 글에서 보이는 경성의 부정적 이미지가 도시라는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실상은 필자들이 유학하고 있던 동경이나 서구의 근대 도시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인식의 소산일 것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경성이 근대 조선의 도시문명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명백한 전제하에서, 근대 조선의 도시(화)가 갖는 문제점들을 또한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망과 낙담뿐이었음을 말한다. 전근대적 생활방식과 근대적 생활방식이 부딪히며 뒤섞여 있는 이중적·모순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이 근대 초기 산문들이 보여주는 경성의 일반적인 이미지다.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그것은 제국주의 권력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점은 근대 도시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인식에 그대로 묻어나온다. 근대 도시 체험기에 근대적 자본주의와 관련되는 대목이 상당수 드러난다는 점과 더욱이 그것이 부정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는 까닭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도시는 거대한 시장이며 도시의 발달은 시장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소비의 창출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온갖 진기한 상품으로 군중을 유혹하고 소비의 욕망을 자극한다. 사람들의 이목과 손발이 닿을 만한 모든 것들에 ‘자본의 향기를 발라두며 그것은 곧 도시 전체를 부유하는 이미지’¹²⁾가 된다. 그럴수록 근대의 조선인은 도시가 조성하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식민지적 빈곤을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靑靑(차상찬)의 「雜觀雜感」(『개벽』 제51호, 1924. 9)은 근대 도시 평양을 배경으로 하여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글은 작가가 평남 일대를 돌아본 소감을 적은 일기체 형식이다. 작가에게 평양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기차의 도착지인 평양역에서 만난, 조선신문을 강탈하고 압수하는 “살기등등한” 일본경찰의 인상으로 지워진다. 제국주의의 시선이 지배하는 피식민 도시 공간을 도시의 초입에서부터 절감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 초기 전반에 걸쳐 안락하고 자유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찾기란 힘들다. 우리의 근대는 제국주의의 침투와 함께 전개되었고 도시의 형성 역시 그것의 산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근대 도시 평양에 대한 화자의 인상은 다음 대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2) 김진송, 앞의 책, 261쪽.

칠성문 밖과 토성 밖에 빈민호수가 오욕배나 늘고, 여관에 찾아오는 걸인이 십배나 늘었다(아니 3년 전에는 잘 보지도 못하였다). 건물이 늘고 다른 시설이 늘어가는 것은 時代進運에 따라 으레 있는 일이지만 걸인 빈민이 자꾸 늘어가는 것은 그 무슨 현상이나 바로 말하면 조선인의 생활이 年年 破滅되는 현상이 아니냐, 그것을 볼 때 어찌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리지 않을까 부냐? (『개벽』 제51호, 127쪽)

근대 도시 평양은 화자에게는 “조선인의 생활이 연연 파멸되는 현상”을 목격해야 하는 처참한 공간일 뿐이다. 서구식 근대 건물이나 시설이 늘어가는 것도 “빈민호수가 오욕배나 늘고” 3년 전에는 잘 보지도 않던 “걸인이 십배나” 늘었음을 숨기거나 상쇄하지 못한다. 오히려 도시화의 진척이 조선인의 빈민화를 더욱 초래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근대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 경제가 전개되는 상(場)이자 자본 축적의 물적 토대이다. 경제 활동의 주요 배경으로 도시인으로 하여금 절대적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도시인의 삶을 긴장과 불안에 직면하도록 하기도 한다.¹³⁾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소득 분배는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경쟁은 치열하고 노동자들은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근대화의 진행으로 조선민의 경제가 오히려 파탄으로 이르고 있음을 생생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근대 도시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평양은 근대 문명세계 이전에 화자에게는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리지 않을”수 없는 서럽고 고통스런 공간이다.

朴在淸의 「多端한 松都의 봄」(『조선문예』 제1호, 1929. 5)은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도시 풍경이 가져다주는 상실감과 패배감, 허무함과 무력감을 개성이란 근대 도시를 배경으로 보여준다. 개성의 학생들은 “봄만 되면 新春歡喜보다도 먼저 불운의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입학난 취업난” 때문이며 그것이 더욱 서럽게 다가오는 것은 그 시기가 “개생의 때”인 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춘에 “春芽를 부르며”

13)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78쪽 참조.

우는 까닭은 배울 곳이 없기 때문이며 졸업하고도 “상품화한 교원을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손가락 하나 꿈쩍 안하고도 혹은 高樓巨閣에 앉아서 또는 자동차에 몸을 실어 綾羅錦衣를 몸에 다 감고 春光春興을 싫도록 찾아다니는 행운아의 일부와 艱辛의 봄 환희의 봄에 즐거워할 줄 모르고 夢田勞動 店裡微役 입학 취업난의 서리 등 불운에 신음하는 불운아의 다대수 외에 웃고 우는 가운데 다단한 송도의 봄은 사라지고 만다(『조선문예』 제1호, 71쪽).

도시는 자본과 신분 모든 면에서 평등하지 않다. 경쟁과 노동과 눈물이 도시를 꾸미고 지속시킨다. “자동차에 몸을 실어 綾羅錦衣를 몸에 다 감고” 있는 이들과 “夢田勞動 店裡微役 입학 취업난의 서리”에 신음하는 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모순되고 양면적인 공간이 도시라는 곳이다. 외양상 물질적 진기함과 풍요로 가득한 듯하지만 곳곳에 황량함과 무기력함이 스며 있는 까닭이다. 개성은 화자에게 “빠져린 고통과 용솟음쳐오르는 비분”(71쪽)을 안겨다준다. 물론 세계대공황(1927)의 여파가 미국, 일본을 거쳐 식민지 조선에까지 밀어닥친 뒤 대규모 해고와 실업의 고통을 품고 있던 탓이기도 할 것이다. 파스하고 찬란한 “艱辛의 봄, 환희의 봄”인데도 개성의 풍경은 입학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서리”가 내리는 한겨울 같다. 글이 보여주는 개성의 이미지는, 근대화의 전개 속에서 자본세계의 중심으로 편입하지 못한 채 주변에서 배회하는 근대 조선 민중의 모습으로 환치될 만한 것이다.¹⁴⁾

小春(김기전)의 「부산의 貧民窟과 富民窟」(『개벽』 제34호, 1923. 4)은 근대 도시 부산을 한마디로 “무서운 큰 동굴이며 巢窟”로 규정해 버린다. 거대한 빈민굴이라는 것인데, “조선의 부를 擄奪하는 幾多 일본인 유력가의 屯聚하는 소굴이며 幾多의 가련한 조선 유산자의 黃金文券을 落失하는 동굴”(『개벽』 제34호, 67쪽)이라는 것이다.

14) 이병도의 「개성행」, 『개벽』 제17호, 1921. 11에서는 화자가 산상에 올라 개성 시가를 굽어보다가 “今昔 변이의 嘆을 抑치” 못해 하면서 “昔日의 변영이 이 같이 쇠락하였나 하는 太息”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근대 도시 개성은 그에게는 오히려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회한과 실망의 공간일 뿐이다.

양철조각 가마니 조각을 함부로 뒤엎고 무슨 널죽판을 되는 대로 뒤마추어 도아지 우리같은 그 집들을 꼭꼭 한 칸씩 뜯어 맞춰서 各姓各家가 別居하는 데 쓰며 그 중에도 尤憐한 것은 대 신동의 그 집들도 亦迫間의 집인데 모두 一閏月 이삼원의 세금을 내이며 있는 그것이다. 조선내의 빈민굴이 어찌 이 곳 뿐이라. 부산의 빈민굴!(67쪽)

이 글에서는 아예 근대도시의 물질적 풍요나 진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에게 부산이란 대표적 근대 도시는 조선민중의 피폐한 생활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거나 빈민과 부민이 모순적으로 함께 있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갖는 공간일 뿐이다.

서구식 고층 건물과 넓은 신작로,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와 전차는 도시의 풍경을 이루는 구성분이자 근대화된 조선의 이미지를 증명하는 표상들이다. 도시 거리는 근대 문물의 진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초기의 산문들에서는 도시화가 가져다주는 개명의 희망이나 최소한의 개발의 긍정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근대 도시의 부정적 현상이나 그 징후들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속에 사는 조선인들은 점점 왜소화하는 한편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듯한 이방인 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근대 산문이 보여주는 도시상(像)은 대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외형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문명화가 가리고 있던 식민지인으로서의 근대 조선인의 박탈감과 피폐한 삶의 실상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은폐되거나 배제되었던 대다수 소농민들과 저임금 도시 노동자의 실상을 충분히 가늠해보게 한다.

이러한 근대 도시의 수용이 단순히 산문의 공간적 배경이나 소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게 된다. 즉 근대 도시의 이미지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의 새로운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근대 산문이 보여주는 바, 근대인이 갖는 도시에 대한 반감은 자연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내지 그것에 대한 재래의 관념

에 새로운 전환이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근대의 자연 체험과 반도회성

근대는 자연에 새로운 성격을 부가한다. 근대화와 함께 도시와 문명이 확장될수록 자연의 반도시성, 반문명성의 성격은 함께 부각된다. 근대를 성격짓는 물질과 과학과 이성에 대비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은 반도시, 반문명과 등가가 된다.

이 시기에 자연 예찬 혹은 고향 회귀의 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도시와 문명 비판의 글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 김윤경, 『仁川遠足記』(『청춘』 제15호, 1918. 9)

근대 도시 인천과 그곳에 정박중인 일본 군함을 둘러보고 그 소감을 기록한 글이다. 그러나 글의 절반 이상의 분량으로 바다를 비롯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글이다. 제목과 달리 인천이란 도시 혹은 문명세계보다는 비문명적 자연 공간에 초점이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의 흔적이 군데군데 역력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화자는 “반도내에서 一二를 爭하는 大港이오 굴지의 대도회”인 인천을 구경하고 싶던 차에 그곳에 정박중인 일본 2함대가 자유관람을 허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차로 달려가 관람하고 돌아온다. 내용상 인천의 도회적 풍경보다는 군함의 위용이나 군함 관람 중에 갖게 된 내적 소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인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내다본 바깥 “자연계의 미”와 군함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접하는 동안의 자연에 대한 사념들이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당초 화자가 여행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인천이란 도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그곳에 정박중인 일본 군함이었다. 인천은 조선의 근대를 열어놓은 개국의 항구이자 굴지의 도회지이고, 군함은 제국주의 권력의 무기이자 물질문명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들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에 글의 초점이 놓여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화자의 시선이 애당초에 두었던 도회 공간이나 문명세계의 위용보다는 자연의 세계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글 전반에 걸쳐 자연이 물질문명 또는 근대 기술과 대비되면서 그것에 대한 감상과 숭회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글의 의도가 비문명 혹은 반도회성에 기초를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속에서 自問自答이 일었다. 풀기 어려운 문제 뿐이었다. 저 美麗하고 奇妙하여 아무도 그 깊은 속을 엿볼 수 없을만치 秘密을 嚴守하는 대자연, 즉 어머니같은 大自然(Mother nature)아! 저 宇宙萬物은 무엇으로 어떠한가 어느 때에 무엇하러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또는 어느때까지 두었다가 무엇을 하려는가?(『청춘』 제15호, 81쪽)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 자연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음으로써 만물의 생산자, 창조자, 혹은 무한한 사랑과 포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¹⁵⁾ “어머니같은 대자연”이라 하고 있음은 새로운 비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따뜻하고 자상한’ 모성으로서의 대지를 강조하면서 역으로 도시문명 공간의 ‘포근하지 않은, 포용적이지 않은’, 배타적이며 타산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스럽다.

이 小短艇에서 眺望되는 水上의 경치는 陸上の 경치보다도 더욱 倍勝하게 美麗하고 또 공기도 더 新鮮한 중에 一望無際한 萬頃蒼波의 茫茫한 大海가 遙遙한 지평선상까지 眼前에 전개된다. 疊疊山中 塵埃긴 불결한 공기중에서 생활하던 茅塞한 흉금

15) ○○○, 「記者一行 遠遊記」, 『별건곤』 제3권 4호, 1928. 7에서: “인간의 도회를 떠나 자연의 품속을 기어든다는 것만도 이미니 품속에 안긴 아기의 마음같이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도시의 일상을 떠나 오랜만에 갖는 야유회의 소감을 쓴 글인데, 화자는 자연이란 ‘어머니’의 품속에서 “마음과 몸이 가뿐하고 가슴이 시원하여 한 십년 더 살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어찌 상쾌하지 아니하리오(83쪽).

“疊疊山中 塵埃진 불결한 공기”란 다름 아닌 도시의 생활, 혹은 그 분위기를 의미한다. 그 속에서 자라난 “茅塞한 흉금”에는 도회 생활에 찌들리고 고통받는 근대 도시인의 일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이것이 근대 초기 지식인이 주목하고 재현했던 도시의 이미지이다. “불결한 공기”의 도시는 ‘질병’을 가져오고 “一望無際한 萬頃蒼波”의 대자연은 그 질병을 치유하고 위무한다.¹⁶⁾ 도시와 자연은 “불결”과 “상쾌”로 대응하며 대비된다. “미려”하고 “신선”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도시와 문명에 대한 불편하고 불쾌한 시각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2) 天園(오천석), 「喬桐島에서」(『서울』 제7호, 1920. 6)

천원이 강화의 교동도를 여행하던 중에 서울에 있는 지인 汕耘(장도빈 - 『서울』 편집장)에게 보낸 기행 서간문이다. 수신자는 지금 “무르쳐는 듯한 더위를 사정도 없이 내어뿜는” 여름 한낮에 근대의 상징적 공간 서울의 한복판에서 “분망”한 상태다. 여름 한낮 서울에서 “과도의 役事”에 쫓기며 “음침한 편집실”에 갇혀 지내는 그의 신세란 세사(世事)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도시민의 일상을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도시는 시간과 자본에 쫓기고 시달리며 지배받는다. 그것이 도시 생활에 구속받고 억압당하는 이유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회지에서 머리를 앓던”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은 “오직 더러움 없는 문명이 없는 조물옹이 넣어놓은 그대로의 맑은 공기만 미만”(『서울』 제7호, 85쪽)한 공간이다. “더러움 없는 문명이 없는”이란 말에서 화자에게 ‘더러움’과 ‘문명’은 거의 동의어로 ‘맑은 공기’에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은 문명에 물들지 않은

16) 이광수의 「동경에서 경성까지」, 『청춘』 제9호, 1917. 7에서도 자연은 건강성과 치유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화자는, 다분히 조선을 암시하는 경성의 병약한 동생에게 자연속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줄고, 「근대초기 기행담론을 통해 본 시선과 경계 인식 고찰」, 『인문과학』 제36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8, 69~72쪽 참조.

청정한 강화의 자연을 부각시킨다.

四便으로 널너잇는 田畓사이로는 네다리로 송낙을 쓴 원두막
이 보이고 그밧헤 나존나무그들에 일울 마친 소가 閑暇로히 풀
을 뜯고 잇습니다. 물결쳐오는 바다우에는 손님실은 木船들이
누르른 돛을 벌길대로 벌기고 쏜쌀갓치 다라납니다(85~86쪽).

‘더러움 없고 문명이 없는, 맑은 공기만 미만’한, 평화롭고 낭만적인
공간을 목가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 공간이, 화자의 머리를 앓게 하
던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회지’와 대비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낮이
지나면 “우뚝우뚝 솟은 산사이로 金盞같은 月輪이 가만히” 떠오르고
“안식의 평화로운 밤”(86쪽)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 글 전반에 걸쳐
‘평화’라는 어휘는 “고요한 마을 평화가 가득한 농가”라는 대목 등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강조된다. ‘평화’의 구체적인 풍경들은 다음
처럼 그려진다.

집으로 짜은 이곳 特産의 자리를 달빛이 明朗히 비쳐오는 압
뜰에 두어셋 連하야 갈아노코 한아버지 아버지는 바다便을 向하
고 안저 長竹에 님담배를 톨톨 마라너코 심심하면 한번式 뽀뽀
발며 한머니 무릅에는 철모르는 孫子가, 젊은 마누라는 불는것
을 첫메기에게, 아희들은 봉송아를 드리노라고 제각금 손고락을
쳐메이고 조와합니다. 둥그러케 돌아안즌 이穌숨에 -昧로운 넷니
야기가 재잘재잘 나옵니다. 미당에는 모기쫓는 쑥내가 기-르게
하늘로 빼치고 잇습니다(86쪽).

농촌 공동체 사회의 전형적인 풍경이 한 폭의 정물화처럼 묘사되고
있다. 고요하고 아늑하고 정겨운 전통적 가족의 “아름다운 회합” 정경
이다.

이처럼 여행지에서 전통의 시골 풍경을 재발견하던 화자는 이어 도
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전 농촌의 정경을 감상적이고 낭
만적으로 묘사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평화롭고 아늑하게 자연을 바
라보던 화자의 시선은 도시를 향해서는 날카롭고 강렬하게 변모한다.

모든 近代思想, 感情, 人間的인 것이 보입니다. 文明이 보입니다. 假相이 보입니다. 欺惡이 보입니다. 虛僞가 보입니다. 假飾, 虛榮, 不正, 諛詐, ○○, ○○, 節制, 爭鬪, 嫉妬, 野心, 奢侈,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저는 戰慄합니다. 저는 다시 눈을 뜨고 이 鄉村을 봅니다. 이 比文明의 農村을 살핍니다. 至純한 自然 그대로의 시골을 헤아립니다. 汕耘先生- 아-文明한 都會와 文明이 업는 이 農村을 比較해야 보는 때에 저는 落望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萬苦 文明이란 者가 이 世上을 이와갓치 極惡하게만 만든 다할진댄 저는 文明을 呪呪 안할 수가 없습니다. 뉴-톤을, 뻬을, 프랭크린을, 왓트를, 에디슨을 呪呪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아리스토텔을, 프라톤을 칸트를, 프프뻬을, 루소를, 몬테스큐를, 조라를, 뻬-그슨을, 니치에를, 스펜서를 呪呪안할 수가 없습니다(87쪽).

도회와 농촌을 문명과 비문명으로 뚜렷하게 구분짓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가 구축한 문명/야만의 개념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성격의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비문명이란 부정적 ‘야만’의 의미가 아니라 “至純한 자연 그대로”의 의미다. 문명이야말로 “지순”하지 못한,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다. 문명/야만이 아니라 오염/지순의 구분인 셈이다. 시골은 자연과 동격으로 놓이며 동일시된다. 화자는 문명과 도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전율”하고 “낙망”하며 “저주”한다. 글은 여러 대목에서 그의 도회지에 대한 극렬한 반감을 확인시킨다.

무슨가답으로 저는 現社會를 呪呪안할 수가 업습니까. 저는 지금 다만 鄉村에 있어서만도 文明하였다하는 都會를 생각할 때에 戰慄하지 아니할 수가 업거든 하물며 이제부터 다시 都會地로 도라가 虛僞의 一人假相의 一分子가 될 생각을 하오매 至極히 떨니는 良心의 呵責을 엿지할 수 업습니다(87쪽).

이와 같이 화자가 문명에 대해 전율하고 저주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문명이란 자가 이 세상을 이와 같이 극악하게만”(87쪽) 만들기 때

문이다. 문명의 ‘극악성’은 “가식, 허영, 부정, 간사, 질투, 야심, 사치” 등의 세세한 요소들로 끊임없이 항목화되어 나열되고 있다. 왜곡된 도시적 삶의 비인간적·비윤리적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가차없이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그 부정적 요소들의 덩어리가 바로 문명 또는 도시라는 것이다.

문명은 인용되고 있다시피 서구의 근대 사상가와 과학자들의 이름으로도 대체된다. 열거되는 이름들이 하나같이 서구인들이라는 점에서 화자에게 문명은 또한 서구와도 일치된다. 근대는 이성, 과학, 문명, 서구와 거의 같은 이름이다. 근대 서구의 자연 이해는 하나의 일정한 물리적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물질적인 것, 기계적인 것으로 보려는 것이었다. 서구의 근대 사상가나 과학자들은 자연을 수학화, 계량화, 예측가능성, 조작가능한 대상으로 놓으면서 기계적 힘과 물리적 법칙에 기초한 기계론적 자연관을 보인다.¹⁷⁾ 화자가 그들을 “저주안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의 사상과 실험이 문명을 만들어냈으며 그 문명이 이 세상을 “극악하게만” 만든 까닭이며 또한 “지순한 자연 그대로의” 세계를 해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와 문명이 극악스럽고 그것에 전율과 저주를 보내는 또다른 구체적 이유는 “현금 문명사회의 인간생활은 金錢功能的의 관념으로 유린”(87쪽)되었기 때문이다.

現代所謂知識階級, 有産階級자들은 誰某를 勿論하고 人道主義, 平等主義를 主唱하는 듯 십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金錢의 勢力으로 壓倒되고 말았습니다(87쪽).

자본논리에 종속당한 근대도시의 풍경이다. 지식과 사상마저 “금전의 세력에 압도”당해 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하는 화자의 언술 속에 도시를 바라보는 그의 참담함이 엿보인다. 도시는 인도주의와 평등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그 속내는 비열하고 비정하기만 하다. 화자에게 근대 도시는 모순과 부패의 덩어리이다. 도시에서 자본은 권력이며 그것은 도시와 근대를 지배한다.¹⁸⁾ 근대의 지식과 정보, 넘치는 ‘모던한 유

17) 김경수 외, 『동서양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보고사, 2005, 61쪽 참조.

흥'19)은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된다. 도시를 “압도”하는 “금전의 세력”은 유산자와 무산자를 갈라놓고 차별한다. “유산자이면 그의 병이 비록 미약한 것이나 상등의 치료를 받”게 하고 “무산자는 현금 세상에 생활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듯”(88쪽) 살아야 하는 게 근대 도시의 풍경이다. 근대 도시인은 모두가 “금전을 위하여 役事”하는 것만 같다. 무산자에게는 “평생 유산자의 노예생활이나 할 그 권리밖에” 없다는 화자의 냉소에는 근대와 문명에 대한 체념과 절망이 역력하다. “생활의 불안, 사사의 불안, 두려운 외부적, 내부적 불안은 각각이 맹렬한 세력으로 돌진”(89쪽)하는 게 화자가 보는 근대의 도시다.

3) 烏石山下 一農夫, 「歸園雜感」(『공제』 제2호, 1920. 10)

평양 도시를 떠나 진남포행 열차를 타고 고향인 동상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기행문이다. 화자는 도회의 피곤함과 권태로움을 벗어나 농촌 고향으로 돌아와 농촌의 현실을 목격한다. 이 글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겪는 회감과 고향 시골에 도착한 뒤 실감하는 농촌의 현실 문제가 내용의 주를 이룬다.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에 대한 그리움을 주조로 하면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상실되고 결핍되는 것들에 대한 향수와 그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 글이 갖는 반도회성은 화자의 귀농 이유 또는 그 배경이 “熱鬧의 城市, 塵埃의 城市를 出離하러” 한다는 데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도시생활에서 壓倦과 辛酸을 不堪케”(『공제』 제2호, 105쪽) 되었기 때문이며 화자 스스로 도시에서는 “孤客”이었음을 고백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도시에 대한 원망과 반감, 불신과 배신이 배어 있음은 물론이다. 화자는 귀농의 이유를 다음처럼 밝힌다.

18) 근대 자본체제 하에서 ‘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글, 飢熊의 「돈아, 사람 살려라」, 『공제』 제2호, 1920. 10는 우연하게도 다음에서 살펴볼 「歸園雜感」 바로 앞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 도시 문제와 자본경제가 서로 연관되면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 신명직, 「모던보이, 京城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324쪽.

清蛩이 余의 愁陣을 衝起할 적에 그의 境界를 蹴坡하는 喧囂한 輪蹄의 城市처럼 最嫌한 것이 없더라. 이에 余는 歸裝을 정하여 厭惡의 평양을 遁하여 憧憬의 我田園을 향하노라(105쪽).

도시는 “輪蹄(시끄러운 자동차 바퀴)의 城市”이며 그것은 귀뚜라미 노래소리[清蛩]를 밀어내는 시끄러운[喧囂] 존재다. 그래서 도시는 “最嫌”의 대상이고 화자는 그런 “厭惡”의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은 “유리창같은 晴空에 皎潔한 月色”으로 화자의 마음을 이끌지만 역시 시가는 “휘황한 전등”으로 그 “風味를 滅殺”하고 만다. 그에게 도시처럼 “가증한 것”은 없다. 도시를 메우는 호화로운 불빛들과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는 화자에게는 가장 가증스런 것들이다. 자연을 “蹴坡”하고 “滅殺”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가증스러움을 넘어 아예 죄악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그런 만큼 자연(시골)은 속죄와 구원과 치유의 공간이 된다.

몇달동안 都會를 깊이 印象한 余의 腦膜은 次第로 淘汰를 받는다. 여기저기 보이는 원두막, 이따금 들리는 牧牛謠, 一面의 綠海인 질펀한 논들, [...] 이런 모든 清新刺戟은 거의 儼으로 하여금 기빠죽게 하는도다. 무한한 ‘자연의 미’는 余의 魂을 불안고 놓아주지 않는도다(106쪽).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생활을 그리고 있다. 자연은 도시생활에 지친 화자를 “위로”하고 품에 안는 “雙親” 같은 공간이다. 긴장과 경쟁, 소외 속에 시달리던 도시생활의 상처와 설움을 자연(고향, 시골)은 씻어주고[淘汰] 치유하며 보듬어준다. 자연 속에서 화자는 “따뜻한 雙親의 寵愛”를 누리며 스스로 “裸裸한 赤子が 되어 宵侍側의 歡”(106쪽)을 다하도록 즐길 수 있다.

언제든지 농촌은 物物이 다 純眞한 ‘저대로’이니. 여가 早春에 家를 離할 적에 中庭에 雜栽한 건우, 鷄林彩松, 甘菊...은 그 枝蔓에 繁殖極意하여 거의 余의 독서실을 봉쇄하고 또 蹊逕을 차

단하였으며. [...] 어느 것 하나 爛漫한 天真, 해방한 자유가 아닌 것이 있으라(107쪽).

화자는 고향 친구들과의 사이에는 “虛僞, 矯飾의 都市風이라고는 一點도 不吹”(107쪽)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과는 “無邪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화자는 “고귀한 농민의 ‘땀의 열매’가 奸商輩의 시장에서 至賤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물가조절이나 사회정책이란 것들이 “只不過村 사람을 희생하여 도시 사람을 救活하는”(107쪽)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자연(시골)의 훼손과 파괴에 도시와 문명이 이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다. 외세에 의한 강제적 주도로 생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폐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자연과 시골이라는 인식이다.

자연이란 억지로 꾸며내거나 왜곡하지 않은, 즉 어떤 사물의 원래의 상태이거나 그 사물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²⁰⁾ 글에서는 도시풍을 ‘허위와 거짓[矯飾]’으로 요약하고 있다. 근대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과거의 농촌 공동체 사회에 대한 그리움과 농촌 회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도시문명에 대한 역설적 비판이다. 도시인의 일상이 자연으로부터 이탈될수록, 즉 도시와 자연의 대비가 심화될수록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근대인의 욕망이 더 강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시골 농촌이 연상시키는 무지나 경제적 낙후, 미개한 생활방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문명이나 도시가 갖지 못하는 “爛漫한 天真, 해방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말한다. 특히 1920년대가 무지, 낙후라는 관념적인 명사로써 소작, 빈농, 폐농, 실향이민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구체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²¹⁾였음을 감안한다면 시골의 ‘순진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 글의 의도가 도시와 문명세계를 의식하고 또 겨냥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 시골 농촌이 훼손되고 억울하게도 “지천한 대접”을 받

20) 김경수 외, 앞의 책, 10쪽.

21) 전해자,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도시와 농촌」,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59쪽.

고 있음은 도시의 폐해에 의한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4) 春城(노자영), 『鐵甕城에서』(『백조』 창간호, 1922. 1)

『백조』 동인지의 일반적인 성격처럼 지극히 감상적(感傷的)인 글이다. 자연과 일체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심사가 낭만적이며 감상적인 묘사 속에 가득 들어 있다. 무엇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에 대비되는 도시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는 것과 그런 도회에 대해 강렬한 반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白雪같은 모래를 兩岸에 끼고 넓으락좁으락 溶溶히 흐르는 푸른 물결은 지나간 옛날을 그윽히 말하며 오라는 무한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혹은 微笑하며 혹은 소리치며 혹은 怒號하며 즐기게 바다로 향하여 간다. 아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이 푸른 물결은 언제부터 흐르며 언제까지 흐르라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치지 않고 흐르고 있는가? 그 물결의 빛을 보고 그 물결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더한 영원한 생명에 쌓여 들어가는 듯이 자연히 옷깃이 정하여지고 발걸음이 단정하여진다. 나는 강안 조그마한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洋服을 벗어 걸고 사루마다만 입은 채로 고요히 앉아 강안을 바라보고 있다(『백조』 창간호, 96쪽).

자연의 영원성과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함, 그리고 그런 자연 앞에서 절감하는 인간 지식의 외소함과 무력함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비밀과 신비로 싸인 우주 자연의 무한하고 미묘한 변화에 매료되어 있다. 문명과 허식의 “洋服”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또는 합일의 이상적 상태’²²⁾라는 동양적 자연관을 어렵지 않게 환기시킨다. “괴로운 세상을 다 버리고 자연의 생명과 함께” 놀고 싶은 게 화자의 소망이다.

비단옷에 금시계를 찬 사람이나 무명옷에 蓍신을 신은 사람

22) 김경수 외, 앞의 책, 13쪽.

이나 그 의복을 벗고 보면 모두 일반일 것이라 하였다. 어찌하여 ○같은 몸에 비단옷만 입으면 귀한 사람이 되고 남루를 입으면 천한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세상에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며 허식이 아니고 무엇일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세상은 모두 다 거짓이요 허식이라 하였다(97쪽).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사회의 모습, “비단옷”과 “금시계”로 상징되는 근대 문명도시의 허위와 가식을 들춰내고 있는 대목이다. 찻집, 극장, 술집, 기생집과 같은 대중적인 휴게나 오락장소, 편안하고 빠른 교통통신이 가져다준 도시의 화려함이 정작 숨기고 있는 허상을 꼬집고 있다. 도시적 장식이 감추고 있는 허망감과 황폐감을 던지시 드러내고 있다. ‘비단옷’과 ‘남루’로 빈부와 귀천을 가르는 인간사와 “벗고 보면 모두 일반”인 만물평등의 자연이 대비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첫날 신부같이 고요한 벌판의 공기는 長閑하기 끝이 없다. 도회의 공기는 흔들리고 뛰며 좌우치며 소용돌이 친다. 그리하고 검무검고 굵다. 그러나 이곳 이 구룡강 일대를 둘러싼 공기는 너무도 潺潺하며 그리하며 감중연하다. 그리하고 희고 가볍고 가슬고 파랗다(97쪽).

화자는 자연의 정연함과 진중함을 말하고 있다. “희고 가볍고 가슬고 파”란 자연의 공기와 “검무검고 굵”은 도회의 공기의 대비는 선명하다. 근대 초기에 서구에서 유행했던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명제는 근대 도시에 대한 자신 있는 희망을 담고 있다.²³⁾ 그러나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첫날 신부같이 고요한” 벌판의 공기에 대비되는 “흔들리고 뛰며 좌우치며 소용돌이”치는 도회의 공기는 그것을 무색하게 한다. 자연의 청량함은 도회의 경박함과 혼탁함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23) 도시가 억압적인 신분제도의 철폐와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주고 인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약속해주리라는 근대 시민 계급의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남진우, 앞의 글, 135쪽 참조.

그一點의 티도 없고 호림도 없으며 평화와 자유를 말하는 듯한 그 하늘. 나는 이와 같은 곳에서 하늘이나 바라보며 그 욕심 많고 더럽고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에 다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면 하였다. 아, 불공평한 세상,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세상, 아 나는 세상 이 세상을 깨쳐버리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공평한 새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였다(102~103쪽).

“티도 없고 호림도 없”는 하늘은 문명 이전의 천진함과 무구함이다. 하늘로 상징되는 자연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공평한” 세계다. 이를 통해 화자는 “불공평한 세상,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세상”의 도시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환기시킨다. 화자에게 도시는 이기와 탐욕의 공간이다. 그래서 당연 “다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다. 도시적 일상을 넘어서는 곳에 열리는 훼손되지 않은 원초적·시원적 삶에 대한 열망²⁴⁾을 보여준다.

개화문명을 주제로 삼는 대개의 신소설에서 서울을 비롯한 도시 공간이 작중인물들에게 교육, 문명, 문화의 중심지로서 동경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농촌은 그와 상반되게 무지와 무질서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²⁵⁾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근대 초기 산문 속의 도시와 자연의 이미지가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春坡(박달성), 「도시를 꿈꾸는 동무에게」(『별건곤』 제14호, 1928. 7)

앞선 본 農夫의 「歸園雜感」이 도시를 떠나 귀향길에 오른 자의 글이라면 이 글은 도시를 떠나고 싶은 욕망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24) 남진우, 앞의 글, 149쪽.

25) 전해자는 신소설에서 도시는 낮의 이미지로 이상향의 공간이며 문화·교육의 중심점이고 富 및 여권신장의 공간으로, 시골은 무지와 가난, 무질서의 공간이며 영웅적인 인물이 탄생될 수 없는 교육부재의 공간으로 밤의 이미지를 지닌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이 개화기소설의 공통적인 주제인 근대 개화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한다. 전해자, 앞의 글, 58~59쪽 참조.

자의 글이다. 농촌에 있는 친구(北農君)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 그 친구는 오히려 도시를 꿈꾸며 이농하려 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맹목적인 호감과 선망으로 도시의 문명 생활을 동경하는 친구에게 도시에의 꿈을 버릴 것을 간곡히 권고하는 내용이다. 화자는 현재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시의 면면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일일이 드러내고 있다. 도시로 향하려는 친구를 극구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도시에 간혀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자의 절박함이 묻어 나온다.

“가자! 가자! 서울로! 박람회로! 이렇게 시골 서울 할 것 없이 박람회만 열리면 무슨 큰 수나 날 것 같이 뒤범벅이 되어 펄쩍 떠든다.” 이것은 당시 『조선일보』(1929. 6. 8)에 실린 「박람회광」이란 제호의 글이다. 백화점, 박람회 등은 식민지적 근대의 표상인바 그것이 이루는 도회지 풍경과 그것에 대한 조선인, 특히 시골인의 환상과 동경은 그 자체가 근대 조선의 풍경을 이룬다.²⁶⁾ 北農君은 이런 조선 풍경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에게 화자는 다음과 같이 도시의 생활을 설명한다.

도시생활을 잘 할려면, 첫째 돈이요, 둘째는 지식이요, 셋째는 직업일세. 이것이 없다면 수단이 좋아 협잡을 잘 하든지, 비위가 좋아 侮辱를 잘 받든지 속이기를 잘 하든지 도적질을 잘 하든지 그도 못하면 쓰레기통이라도 뒤지고 유치장을 안방같이 아는 이가 아니면 안되는 것일세(『별건곤』 제14호, 38쪽).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들을 분류하고 나열하는 언술 속에 도시에 대한 냉소와 풍자가 역력하다. 협잡, 모욕, 사기로 점철되는 도시 생활은 이미 공동체적 유대나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배제된 세계²⁷⁾로 묘사된다. 소외와 이탈, 이기적 무관심과 비열한 경쟁이 지배하는 공간, 그것이 도시인 것이다. 불의와 탐욕, 비정과 사리(私利)만이 판치는 살풍경한 공간이다.

26) 신명직은 앞의 책, 286~298쪽에서 안석영의 ‘만문만화’의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이 구체적인 풍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7) 남진우, 앞의 글, 156쪽.

경험삼아 한번 해 볼테면 해도 보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눈물뿐이요, 한숨뿐이요, 후회뿐이요, 타락뿐이요, 밤바가지뿐이요, 구절뿐이요, 심하다면 자살 아니면 발광일 것일세(39쪽).

도시생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 드러나 있다. 눈물과 한숨에서 자살과 발광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어휘들이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다. “해 볼테면 해도 보게”란 언사 속에는 도시를 꿈꾸는 친구에 대한 야유와 힐난이 묻어 있다. 그것은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다름 아니다. 친구와 화자는 근대 도시공간이 갖는 환상과 절망을 각각 보여주는 대비적 설정이라 할 만하다. 환상을 가질수록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근대 도시의 “경험”이다. 친구는 도시로의 진입을 꿈꾸지만 화자는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고 있다.

나는 실로 도시생활에 厭症 逆症이 나서 죽을 지경일세. [...] 이제 그만 고질이 되고 중독이 되어 벗어나지도 못하고 더럽고 까다로운 양심에 허지도 않는 생활을 계속하기에 실로 괴로워 죽겠네. 무엇보다도 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불결불합리의 사사건건에 눈꼴 물리고 심정 상해서 못살겠네. 노골로 말하면 일개 순진한 백성이 강도적의 소굴에 인질이 되어 노예노릇을 하는 셈일세(40쪽).

도시산업화의 외형적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의 피폐한 삶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친구의 상성을 만류하는 기회에 아예 자신의 도시생활의 속내를 솔직하게 고백해버린다. 도시생활의 어두운 면들을 여실히 부각시킨다. 화자는 마치 도시 생활에서 큰 상처를 얻은 듯 도시에 어떠한 애정이나 애뜻함도 보이지 않고 “厭症 逆症”으로 가득하다. 도시문명에 대한 경이나 찬사, 자랑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화자의 눈길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다. 격앙된 목소리로 화자가 비판하는 도시는 비열하고 비정한, 인간적 숨결을 찾을 수 없는 공간이다. 그에게 도시는 “강도적의 소굴”일 뿐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함부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데 있다. 자

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량한 이들은 그곳에서 “인질”로 잡혀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도시에 갇혀서 본래의 자기를 상실하고 도시 속의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²⁸⁾ 화자 자신 현재 도시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내심 달아나고 싶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는 화자에게는 ‘유패(幽閉)’의 공간이다.

부정과 비리의 “소굴”로서의 도시의 이미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실감있고 통절하게 전해진다. “죽을 지경”이라든가 “못살겠네”라는 과장적 극언의 반복은 탈주를 꿈꾸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좌절의 표출이다. 그럼에도 도시의 삶은 이미 “고질이 되고 중독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도시의 강제적 규율과 관습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은 이미 타성화·만성화되어 난치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한다. 도시생활에 대한 화자의 반감은 차라리 체념에 가깝다. 이처럼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근대 초기 산문들은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비윤리적 경쟁이 초래하는 혼탁함과 비정함을 보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5. 나오는 말

도시는 근대의 풍경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근대 초기 산문들은, 당대인들에게 도시 공간은 대체로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근대적 도시의 형성과 전개가 내면적·자발적 힘보다는 외부의 강제적·전략적 기획과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 도시가 전통적 풍속이나 풍경을 소거 또는 배제하는 데 대한 본능적인 반발이나 경계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이 시기가 식민 시기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음험한 제국주의와 그것을 위장하고 있는 문명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 자연을 다룬 담론들은 서구적인 것, 문명적인 것의 우월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강조하지

28) 남진우, 같은 글, 136쪽 참조.

않는다. 오히려 그것의 부정성을 노골적으로 때로는 자연과의 비교를 통해 은근하게 드러내거나 조장한다. 이 시기 자연 담론들은 문명(도시)/비문명(자연·시골)의 대립을 우월/열등의 차등으로 이분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신문물로 장식'되는 도시의 풍경과 '원시적이고 미개화'한 자연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며 그 경계는 더 확연해진다. 그 이유가 단지 물질문명이라는 외양적 조건만이 아니라, 사기와 거짓, 무질서와 소란 등 내제적 조건에 있었음을 근대 산문들은 보여준다.

근대인은 자연 세계를 통해,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도시와 그것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을 회의하고 반성한다. 근대인의 눈에 비친 도시의 풍경은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며 그것을 포착해내는 그들의 시선은 냉정하고 또 우울하다. 자연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상대적으로 더 비인간적이며 반윤리적이다. 허영과 위선에 뒤틀리고 자본의 권능에 짓눌려 있으며 소란과 혼란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다. 근대의 산문은 “죄악의 배양지”(『서울雜感』), “강도적의 소굴”(『도시를 꿈꾸는 농무에게』), “전운”과 “저주”의 공간(『喬桐島에서』)으로 묘사한다. 그곳에서 근대 조선인의 욕망은 물질적으로 늘 충족되어 있지 못하며 정신적으로는 그보다 더 길핍되어 있다. 그것은 요컨대 근대 도시적 삶에 안착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국외자의 모습이다.

도시와 문명의 대립향으로서의 자연의 존재 설정은 또다른 근대의 소산이다. 자연은 더 이상 낙후된 저발전의, 야만과 미개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가 갖지 못한, 도시가 잃어버리고 있는 “爛漫한 天眞, 해방한 자유”(『歸園雜感』)를 주고, “안식을 주고 유쾌를 주는”(『鐵甕城에서』), 순수와 질서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모더니티의 표상공간 체제하에서 자연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인은 도시의 형성발달과 함께 역설적이게도 자연을 발견해간다. 도시 문명에 대항하는, 혹은 대비되는 자연의 이미지는 근대 의식의 또 다른 산물이다.

본고에서 다룬 산문들을 도시에 대한 일방적 매도나 부정, 또는 자연에 대한 맹목적 예찬이나 긍정으로 단순히 도식화·양분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 대상의 글들이, 도시와 자연을 포함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대의 격랑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근대는 새로운 담론들이 수 없이 쏟아지며 충돌하던 ‘담론의 시대’다. 더 많은 담론들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시기의 도시와 자연에 대한 인식과 관념은 좀더 정교하고 확연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근대 초기 조선, 근대 산문, 근대성, 재현, 도시, 자연, 시각, 문명, 공간.

참 고 문 헌

기본 자료

- 小星, 『京城小感』, 『청춘』 제11호, 1917. 11.
 秋湖, 『서울雜感』, 『서울』 제5호, 1920. 4.
 靑吾, 『雜觀雜感』, 『개벽』 제51호, 1924. 9.
 朴在淸, 『多端한 松都의 봄』, 『조선문예』 제1호, 1929. 5.
 小春, 『부산의 貧民窟과 富民窟』, 『개벽』 제34호, 1923. 4.
 天園, 『喬桐島에서』, 『서울』 제7호, 1920. 6.
 烏石山下 一農夫, 『歸園雜感』, 『공제』 제2호, 1920. 10.
 春坡, 『도시를 꿈꾸는 동무에게』, 『별건곤』 제14호, 1928. 7.
 春城, 『鐵甕城에서』, 『백조』 창간호, 1922. 1.
 김윤경, 『仁川遠足記』, 『청춘』 제15호, 1918. 9.
 赤羅山人, 『모던 數題』, 『신민』, 1930. 7.

참고 자료

-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김경수 외, 『동서양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보고사, 2005.
 김준오·전혜자·박경주,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김영근,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사회와 역사』 제57집, 한국사회사학회, 2000.
 김중철, 『근대초기 기행담론을 통해 본 시선과 경계 인식 고찰』, 『인문과학』 제36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8.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남진우, 『한국시의 도시성과 근대성』,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근대 근대성 근대문화』, 월인, 2005.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997.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연관 연구』, 『한국학논집』 제32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8.
 이효덕·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Abstract

Urban Image and Experience Nature in Early Modern Korea — Focus on the Writings between 1910's and 1920's

Kim, Joong-Chul

This study aims at studying the aspect of the urban image and the experience nature in early modern korea that appears in writings of that time. The urban is representation of modern, and that concentrate modernity. On that point, the writings about urban of early modern korea are basic raw materials that show the landscape of that time. the recognition of urban is strictly connected with the recognition of nature. Because, urbanization and civilization have an influence on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in the end. The writings in early modern korea don't distinguish between urban and nature into the civilized and the uncivilized, superiority and inferiority. On the contrary, the reverse is the case. Urban was portrayed with negatively and incredulously. it was represented as the place of vanity, sin, and gloom in that writings. On the other hand, nature was portrayed as place of purity, liberty, and disengagement, not as uncivilized and wild. That writings show that early modern korean rediscovered nature with the progress of urban. The image of nature that opposed or contrasted urban is the another production of modernization.

* **Key Words:** Early modern korea, modern writings, modernity, representation, urban, nature, observation, civilization, space.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7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